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20대 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다. 대통령제를 선택한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축제인 대선이지만 분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대선 레이스가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서로 상대의 의혹만을 집중 부각시키는 막장의 흐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창궐이라는 전대미문의 현실 속에서 5년 전의 촛불 정서는 실종됐고 미래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만 유행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최악의 대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심의 저변에는 대선 이후가 걱정된다는 기류도 강하다. 대선 정국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대선 이후에도 재현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구도

지난 대선 레이스를 돌이켜보면 끔찍하다. 네거티브 공방의 연속이었다. '준비 안 된 후보' '믿을 수 없는 후보'라는 힐난 정도는 기본이다. 서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며 막판까지 진흥당 싸움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상대 진영을 향한 저주의 막말도 쏟아졌다. 더불어 민주당은 소가족 혐기 국판과 신천지 비호 의혹을 끌어

은편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광주시 선거 공약 중 하나는 '복합쇼핑몰 유치'다.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왜 대통령 선거에서 지자체장 선거에서나 있을 법한 공약이 나올까도 의문이지만, 이 정도 공약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유심히 봐야 할 점이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살맛 나는 도시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직장·휴식·여가·교육·쇼핑·의료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중 쇼핑을 포함하여 여가 휴식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일명 복합쇼핑몰이라고 한다. 이런 곳은 돈 쓸 사람이 가서 물건도 사고 값비싼 여가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냥 공짜로 공간과 장소가 제공되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최근 지어지는 대형 판매시설들은 경영 전략으로 독특한 공간 마케팅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건만 팔고 사는 곳이 아니라 공간 체험, 제품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왜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가 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나오고,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일까? 어찌 보면

기고



오지현 조선대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상담심리학과 교수

2014년 3월 임용 후 직업에 변화가 생겼다. 약 10년 동안 병원에서 놀이 치료사로 일하고 연구를 하다가 대학에 오면서 놀이 치료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로 바뀌었다. 그동안 공부와 수련을 통해 내가 직접 치료를 하고 연구하는 행위는 너무나 익숙하였지만, 치료와 연구를 '가르치는' 행위는 낯설고 배워 본 적이 없었다. 시간 강사나 특강 강사로 강의하던 방식으로는 1학년년부터 4학년까지 연계된 전공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이후 2학기부터 교수학습 개발팀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교수법 워크숍에 참여하며 '아, 이래서 모르는 건 배워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아, 보면 늘겠지' 했지만, 잘 가르치는 법도 배워야 했다. 한 학기 내내 교수법 연구 모임과 수업 활용 컨설팅, 사례 공유 워크숍까지 짝 찬 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시작했는데 일이 커졌다. 프리클래스 동영상 제작을 위

'개나리 대선'의 희망

들인 '주술 프레임'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에선 법안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빗대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을 '기생충 가족'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선동적 파시스트로 낙인찍었다. '내조 유세'로 한 몫을 해야 하는 양강 후보 배우자들은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선 당일까지 아예 공식 석상에 나서지도 못했다. 퍼스트레이디가 될 배우자들이 그만큼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래서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배우자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공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TV 토론도 빗맞고 개운치 않았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담은 넉넉한 인품과 준비된 정책적 비전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난전만 난무했다. 양강 후보 모두 '통합의 대통령'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분열과 대립이 격돌했다. 윤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와 이 후보의 발차기 퍼포먼스가 상대 진영에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 완주를 강조했던 제3지대의 안철수 후보는 사전 투표 전날 갑작스레 윤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하는 '철수의 정치'를 다시 선보이며 민심을 뒤집어 놓기도 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란 용어가 있다. 잠재적 위험을 간과하다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코뿔소는 3m가 넘는 길이에 2t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자랑한다. 그러나 코뿔소가 지나온다면 누구나 땅의 울림을 듣고 느낄 수 있다. 대표적 회색 코뿔소의 사례로 위험 경고가 계속됐지만 이를 무시하다 파국을 맞은 지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들 수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다. 회색 코뿔소들이 어찌저찌 휘젓고 다니고 있

는 상황이다. 벌써 3년째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재난이 빈부의 깊은 골을 타고 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민생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서민들은 코로나 19의 대학산에 각자도생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다.

투표로 통합의 미래 열어야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 기후 위기에 에너지와 식량 위기, 세계 경제 침체 조정 등 엄청난 파고들이 밀려오고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 공세에 묻혀 좀처럼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할 정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를 선출하는 대선이 오히려 미래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선은 개나리가 꽃망울을 머금은 3월 초순에 치러진다고 해서 '개나리 대선'이라 불리고 있다. 봄의 전도사인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 투표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1.45%로 제일 높았고, 전북 48.63%, 광주 48.27%로 뒤를 이으면서 호남의 높은 정치 의식을 반영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투표 참여가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분산과 대립 구도를 넘어 역대급 투표율로 국민적 집단 지성이 만발해 민생과 미래, 통합과 포용의 봄을 열어가는 개나리 대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을 바라보는 마음

지역민의 수면 아래 쌓여 있는 이런저런 아쉬움과 불만을, 야당이 관심 끄는 선거 전략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적 느낌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2015년 당시 광주시장은 신세계와 업무 협약을 통해 대형 판매 시설과 호텔 등 복합 시설을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유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상인들이 사할(?)을 걸고 반대했고 지역의 지배적 특정 정치권이 이에 동조, 여론을 주도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이때 이를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아쉽다. 언론 어디에도 찬성한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 되돌아보니 그때가 기회였다. 지금은 유통과 판매의 판도가 바뀌었다. 대기업에서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 기업인은 정치인보다도 세상 흐름에 훨씬 예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2021년 8월. 광주가 거부했던 대형 판매 시설과 호텔이 대전광역시에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때 주변의 많은 시민도 아쉬워했다. 대전은 왜 이를 유치했을까. 그 현장에 직접 가 보았다. 광주가 차 버린 대형 쇼핑몰을 대전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다. 내부를 둘러보면서 가슴앓이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역의 리더라는 사람들은, 특정 생각에 갇힌 목소리 큰 사람은, 지역사회의 역량은, 침묵하는 시민들은, 그리고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지역을 위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았다. 한숨이 나왔다. 왜 광주 지역

사회가 그때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만 하고, 상생 방안을 찾지 못했을까. 셋째, 광주 미래를 위한 제1 야당의 대선 공약이 복합쇼핑몰 유치 정도라는 것이 어처구니없지만, 이 정도로 지역사회가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이다. 지방선거의 이슈를 대선 공약으로 치켜든 야당도 문제지만, 대통령 선거에 합당한 도시 미래 비전이나 도시 발전 전략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역량으로 보여서 서글프다. 수도권에서 멀리 위치한 광주라는 도시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기업이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어떠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 줄 전략과 대안이 선거 공약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다.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그때를 알고, 그 일을 추진하는 능력을 보여 주길 희망해 본다. 지난날의 모든 지점은 교차로였다. 우리가 과거에서 오늘까지 걸어온 길은 여러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한 결과였다. 여기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길도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길이다. 이 중 일부는 더 넓고 평탄하며 이정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도 더 크지만, 때때로 역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예상을 벗어나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광주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 내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지하면 좋겠다. 오늘의 수확은 어제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내일의 결실은 오늘의 행동에 대한 선물임을 잊지 말자.

'가르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한 준비와 활용, IT와 친하지 않아서 생기는 난제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문제 개발 등으로 한 학기를 바쁘게 보내야만 했다. 이때부터 나는 '열정 만수루'가 되어 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악플(?)이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학생들의 수업 평가는 "차라리 주입식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였다. 주말을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에 학생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했는데 스스로 분석한 결과 이는 교수의 수업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원인이었다. 교수는 질문과 토론에 낯선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또다시 도전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들었지만 전담식 강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말이 많아졌으며,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나는 점점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 "진도를 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수가 자신의 지식으로 공간을 점령하는 교육이 아닌 공간을 열어 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용기"(파커 파머)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이다. 인간은 누군가를 교화(敎化)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반면에 또 인간은 교화에 대한 반사 본능도 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건 중요하나 변화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힘을 아끼던 그때, 민화 '송곳'에 나온 대사가 생각났다. 반성했다. 군대의 문화를 바꿔 보고자 했던 주인공에게 "어슬픈 변화보다는 예전처럼 상사에게 맞는 게 편하다"고 말했던 부하의 심경(心境)이 떠올랐고, 이를 통해 반성했다. 그렇다. 어슬픈 교화는 위험하다. 변화란 상대방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반사가 줄고 자발적 동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긴 호흡으로, 멈춤 없이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내가 지금까지 학생 참여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가 가르치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학생들이 '배운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교육자는 '가르치지 않을 용기'를 내야 한다. 가르치려고 하는 유혹을 견뎌 내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통해 나 또한 교사-연구자(teacher as researcher)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社說

운명의 20대 대선...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선거의 날이 밝았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이다. 22일간의 치열한 선거운동을 마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제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만 44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전체 선거인 수 4419만 7692명 가운데 1632만 3602명은 이미 지난 4~5일 사전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사전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처음으로 80%를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은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각

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 탓에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불렸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이다. 초박빙 접전 구도 속에 양 후보 측은 자체 조사 등을 바탕으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양극화 및 불평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어떤 후보가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심사숙고해 귀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실령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선거 공보에 담긴 공약과 후보자 정보를 한 번 더 살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내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화정동 붕괴 사고 '총체적 부실' 드러났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신축하던 광주 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연쇄 붕괴 사고 원인은 공법 및 구조의 임의 변경과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총체적인 부실 시공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최근 경찰에 전달한 '재해 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최초로 붕괴가 시작된 원인은 동바리(지지대) 제거와 역보(수직벽) 무단 설치 등 임의의 구조 변경 때문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PIT층(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 두는 층)을 떠받치기 위해 '거푸집 공법'에서 '데크 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맞춰 하부 층 동바리를 보강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하중이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결국은 PIT층 바닥이 처짐 현상을 보이다 무너져 내렸다는 분석이다. 또한 39층 타설 작업 중 하부 23층까지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된 이유는 연

속적인 총력 하중과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으로 드러났다. 상부 구조물이 붕괴돼 하부로 낙하하며 하중을 키운 데다 하부 또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이나 벽을 최소화한 '무량판(無梁板) 구조'로 시공돼 상부의 누적된 총력 하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 관리 부실과 국부적인 품질 불량으로 인해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돼 간다. 경찰은 불량 콘크리트 공급 과정과 부실한 공사 관리·감독 등 연쇄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규명해야 한다. 특히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아파트에 대한 안전 진단 등 후속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의용(義勇)'은 충의(忠義)와 용기(勇氣)의 출입말로, 이를 위해 일어나는 용기다. 정의를 옹호하고 실천하기 위해 불의를 과감히 물리치려는 의로운 용기라는 의미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가 의용소방대와 의용군이다. 20년만에 최악이라는 강연 삼척과 경북 울진의 산발로 의용소방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의용소방대원들이 최전선에서 나흘째 산발과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용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심

다.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의 국제 의용군 참여는 국내 실정법 위반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 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로 이를 어길 경우 여권발 유회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씨는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지만 촉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가 심해 부득이하게 출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살아서 귀국한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용군인 만큼 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용군은 일제강점기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다. 독립 무장 부대로 일본에 맞서 중국에서 활동하다 광복군에 편입돼 주축됐다. 80여 년 만에 등장한 의용군은 굳이 찬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나서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될 일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의용군(義勇軍)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address, and subscription rates.